



[산업]
구광도 LG대표
취임 2주년
'뉴LG' 본궤도
06



Life

[라이프]
홀술·홀카페·홀트
집콕 필수템 한곳에
'워라벨 페어'
니



한산모시·소곡주... 1500년 백제역사, 서천을 거닐다

충청남도 서남부에 위치한 서천은 백제시대부터 1500여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한산 세모시로 유명한 고장이며 부여군, 서해, 전북 군산과 맞닿아 있어 농산어촌이 어우러진 천혜의 고장이다. 한산모시마을은 세모시의 정교한 직조기술을 전승·보전하고 있으며 한산 모시짜기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지난 26일 충남 서천군 한산면을 방문, '모시·소곡주 명장(名匠) 체험'을 직접 해보고, 한산모시의 우수성과 한산소곡주 깊은 맛에 빠져들었다.



한산모시관.



/서천군

메트로 트래블 충청남도 서천

◆전통 모시 보존·확산에 앞장서는 한산모시조합
충남 서천군 한산면 '모시·소곡주 명장(名匠) 체험'이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9년 산업관광 지자체 공모 사업' 대상에 당당히 선정됐다..

충남 서천군 (사)한산모시조합(대표 임은순)은 2006년 6월 설립되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아 현재 한산모시 종사자들 대부분이 안정적인 일 자리를 제공받고 있다. 한산모시조합은 고령화되며 사라져가고 있는 한산모시와 소곡주 종사들에 재취업 및 일자리 제공으로 모시소곡주산업 성장동력에 힘쓰고 있다.

한산모시조합의 주요사업은 전통모시산업육성으로 ▲한산모시수매 및 한산모시 의류 및 소품 판매 ▲한산모시의 전통계승, 무형문화재보존·육성을 통한 사회서비스 ▲한산모시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해 생산자 이력등록 ▲태모시, 굵모시, 필모시 생산자로부터 정기적 수매 등이 그 역할이다.

한산모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중인데, 미니베틀로 직접 실팔찌를 짜볼 수 있는 '미니베틀모시짜기'와 공예, 침선, 염색, 부채, 쿠키 5개 체험이 인기다. 한산모시옷을 입어볼 수도 있고, 주말에는 한산모시잎차 차례 체험도 가능하다.

어린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모시쿠키 만들기 운영관계자는 "밀가루, 설탕, 버터, 식물성 한산모시 분말이 주재료라 미리 해 놓을 수가 없다. 식물성이라 냄새도 강하고 맛도 변하기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한다"며 "초등학생 이하는 1000원 에 체험이 가능하고 굵는데 7분 걸린다"고 말했다.

한산모시조합 임은순 대표는 "서천은 바닷바람, 강바람, 산바람 3종이 맞아 모시가 유명한 지역이다. 강수량도 적정해 모시질의 질긴 강도가 좋다. 중국 모시와 비교해 모시실을 짤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중국모시는 기폭이 한 두개 있으면 한산모시는 10개 이상있다. 모시잎 가루에는 우유보다 칼슘이 87배 많고중성지방을 낮추는 루틴, 치매·노화방지에 좋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포함

모시 보존·소곡주 산업 '한산모시조합' 모시 짜기·쿠키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서천 대표 전통주 소곡주 갤러리 운영도

서천바다 풍경 즐길 수 있는 스카이워크 장항읍 미션여행·6080 맛집투어 인기

데 있어 모시잎 가루로 떡, 젓갈, 강정, 칼국수 등 다양한 음식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모시의 다양한 활용에 주목하며 "조합 대표로 일하며 한산모시 및 소곡주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보조사업을 통해 공예마을을 체험료 인하 및 적극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힘쓰도록 하겠다. 마침 7월21~28일까지 서울 청계천 관광공사에서 북주머니 만들기 등 모시 체험 및 홍보행사를 진행하니 이번기회에 한산모시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군청 오대석 모시소곡주팀장은 "서천의 대표적인 전통주가 소곡주이다. 과거에는 누룩을 적게 넣어서 소곡주라 했는데, 서천이 백제지역 일 때 전쟁터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제사를 지낼때 제주(祭酒)로 쓰여, 미망인이 빚은 술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백제의 술로 불리우고, 주원료는 찹쌀이다. 다른 전통주와 다르게 2단 담금법으로 담근다. 밀술 백설기 누룩에 버무려 발효시키고 1차 국물을 가지고 술밥을 지어서 항아리 저온에서 100일 숙성을 시킨 16~18도 전통 약주다. 증류한 소곡주 중 알코올 도수 43도 짜리도 있다. 동네 67가구가 술을 만들고 있고, 서천군에서는 일반인들이 무료로 시음하고 사갈수 있도록 소곡주 갤러리를 운영중이다"고 설명했다.

서천군 문화관광과 나연옥 해설사는 "한산모시관은 서천 대표적 특산물 한산모시를 알리기위해 1993년 개관되었으며 전체면적 10만㎡ 규모의 한산모시 전시관, 홍보관, 전수교육관, 공예모시공방, 모시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산모시를 짜는것은 수작업으로 이뤄진다. 현재, 연로한 분들이 모시 스쿨을 운영해 후계자들을 양성해 내는

데 어려워 안타깝다. 전통섬유로 여름철 옷감으로서 문화유산으로 남겨져야한다. 전통공방에서는 무형문화재 모시짜기로 지정된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14호)방연옥선생님, 도지정(충남무형문화재 1호)박미옥 선생님이 후계자를 양성중이다. 염색, 모시케익, 바느질, 공방 등 전통공예마을에 자리잡고 있다. 모시로 만드는 체험도 같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장항송림산림욕장과 스카이워크

장항 송림산림욕장은 산책로 1.2km를 정비하고 맥문동을 식재하여 총 3.5km에 이르는 곰솔숲과 맥문동 꽃길, 바닷길을 연결하는 산책로 조성을 완료, 편안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스카이워크는 해송림을 받아들여 두고 거닐며 서천바다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스카이워크 중앙엔 기벌포해전 전망대가 있어 서천 지역의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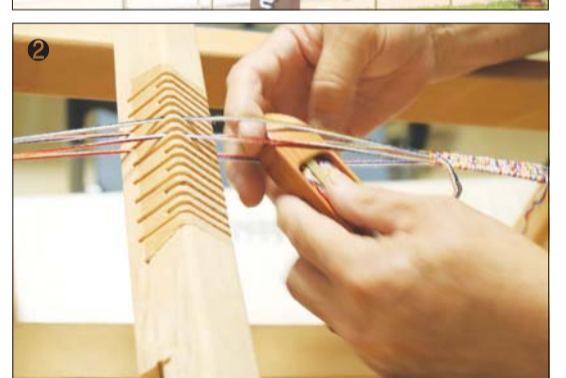
◆장항 6080골목나들이 미션여행

'1931의 비밀'장항제련소에서 사라진 금괴를 찾아라! 장미향을 따라 금괴와 황금벌치를 만날 수 있는 미션여행하러 출발하자.

장항읍주민자치회는 ▲숨겨진금괴를 찾아라 ▲SNS 글올리기 등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지역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길을 새롭게 단장중이다. 거리 곳곳마다 다양한 예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맛집이 많기로 소문난 6080 음식골목을 중심으로 한 맛집투어도 사랑받고 있다. 달고나밀크티 만들기, 입는 아로마 만들기 등은 사전예약해야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서천군 관광축제과 오대석 모시소곡주팀장은 "모시에 대한 이해와 모시에 대중화를 만들어 서천에 산업관광이 활성화 되어 지속 발전 가능한 산업관광으로 자리를 잡기를 기대한다"면서 "모시산업관광을 주축으로 서천의 스카이워크, 향미와 함께하는 6080여행(생활관광)이 더불어서 천에 대표적 여행상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천(충남)=이민희 기자 lmh@metroseoul.co.kr /취재협조=서천군, 한산모시조합



① 한산모시공예마을. ② 직접 실팔찌를 짜보는 한산모시 '미니베틀모시짜기' 체험. ③ 한산소곡주. ④ 서천 스카이워크. /서천군, 이민희 기자